

고등교육 정책소식

|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지원 사업만으로는 산학협력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산학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 실적만큼 우대받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
2.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3. 신규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비율 제고
4. 정보공시 및 대학평가 개선

교과부는 동 개선방안에 따라 대학 교원인사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에 반영하여 대학별로 교수업적평가, 재임용·승진시 산학협력 실적반영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존에 연구실적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학 교원 임

용·평가 방식이 산업체 경력 및 산학협력 실적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대학체제가 현장에 적합한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단계평가 결과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양 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인 “2단계(’09~’13)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대학과 기업의 쌍방향적 산학협력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2004년부터 부처 공동으로 기획·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수행 대학의 교육내용과 교수 인사 등이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 산업체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단계평가 결과 발표의 수요에 맞춘 인력·기술·장비의 종합적 지원 등 지

역 대학이 산학협력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은 성과 중심의 관리체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2년 + 3년” 단계별사업체제로 기획되었으며, 금번에는 2차년도까지의 성과에 대한 단계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미흡한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3차년도('11년)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데,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 성과 우수기관

- 4년제 대학(5개) : 경북대, 동국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밭대, 한양대
- 전문대학(5개) : 경기공업대학, 경남정보대학, 대림대학, 두원공과대학, 충청대학
- 산학협력연계망(2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제주대

◆ 지원 중단기관

- 전문대학(2개) : 거제대학, 신성대학

※ '11년도 지원예산:

총 420억원 (4년제 310억원(지정부 130억원 포함), 전문대학 80억원, 연계망 30억원)

특히,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체제 개편) 교수 업적 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고 교수 임용 시 산업체 경력을 인정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대학의 체질이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 교수업적평가에산학협력비율:

'09년 26.7%, '10년 29.8%

※ 교수임용시산업체경력인정비율:

'09년 68.9%, '10년 79.4%

(인력 양성 · 기업지원)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 증가 등 현장 적합성 있는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산학협력 가족회사 지원, 기업 애로기술 지도를 통해 기업 지원 역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

'09년 5,273명, '10년 8,163명

※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09년 894건, '10년 1,014건

※ 산학협력가족회사 수:

'04년 4,745개 → '10년 13,885개

교과부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형 대학으로 변화하기 위한 대학의 부단한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산학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대학 · 기업체 등 관련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 소기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 사업이 여러 사업으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기존의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를 육성하는 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으로 확대 · 개편하여 산학협력의 다양성(divers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및 대학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이 창출되고, 우수인력양성과 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연구비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1년 3월 25일(금) 15시 연구비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이 각 대학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4년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200여명이 참석하여 우수사례 발표와 각 대학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북 충북대학교 학연연구부장과 이순원 성균관대학교 연구지원본부장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연구비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법령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정비와 산학협력단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감사 및 구매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산학협력단 조직을 정비하고, 학습조직을 통해 업무를 표준화하여 매뉴얼에 따라 집행을 안내하고 검증함으로써 부적정 집행사례를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대학의 전산 시스템을 연동시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여 10억원 정도의 추가 이자수익이 발생하였고, 연구자의 편의와 연구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사전 통제 장치로서 개별연구

자 및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물품 구매와 검수, 연구비 정산 및 연구원 인건비 지급 등을 일원화하여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원 1인 1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연구책임자나 선임연구원이 일부 학생 연구원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사후적 통제장치로서 철저한 감사와 연구비 집행 단계별로 적정성 검토를 하는 등 연구비의 흐름에 따라 사전·사후 통제 및 중앙관리를 강화하였다.

| 「APEC 교육장관회의」 한국에서 열린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도 6월에 개최될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APEC Education Ministerial Meeting: AEMM)'를 우리나라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 7 ~ 3. 11 워싱턴에서 열린 '제33차 APEC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APEC HRDWG)' 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되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연안 21개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및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와 합동각료회의가 개최되며 15개 분야별 장관회의가 주기적으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도에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제주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APEC 교육장관 회의는 1992년도에 시작하여 4년

마다 열리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사안을 협의한다. 이번에 교육장관회의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2번째 개최국이 되는 것이며, 해방이후 교육분야 각료급 회의로는 최대 규모 국제 행사로서, 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칠레·페루 등 중남미 국가, 태국·베트남·브루나이 등 동아시아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21개국 교육장관들이 한국에서 모이는 역사적인 장이 된다. 내년에 개최될 교육장관 회의에서는 21개국 교육장관 및 교육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APEC 회원국 간 교육협력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 리더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교과부는 국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요외제 및 프로그램 발굴 등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인유학생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8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현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학사관리를 포함한 전반적 관리, 지원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였으나, 일부 대학의 유학생 관리 부실에 따른 유학생 중도탈락, 불법체

류 등에 따른 한국유학의 이미지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는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 등 유학생관리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개 대학을 표본으로 서면조사를 수행하고 그 중 11개 대학을 현장점검한 결과, 유학생 입학, 학사, 생활 등 지원·관리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각 대학에 시정·개선을 요구해나갈 방침이다. 유학생 중도탈락을 및 불법체류율이 낮고 전담직원·조직 및 기숙사 등 지원체계를 갖춘 대학도 일부 있었으나, 엄정한 입학·학사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학생 입학·학사관리 등에 대하여 문제로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리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1단계로는 개선계획 및 개선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유학생 관리를 개선을 유도하고, 2단계로는 미개선 대학에 대해 사중발급제한, 재정지원사업 제한 및 명단공개 등 제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표본조사 결과 국내 대학의 유학생 관리수준이 유학생 수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판단, 국내 대학의 유학생 관리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유학생 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여, 개별학교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부실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 인증제」를 통해 중,상위권 대학의 자발적인 유학생 관리체계의 질적인 강화를 유도하며, 입학,비사신청 등을 On-Line으로 One-Stop 서비스할 수 있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학생 관리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세계 교육시

장에서 한국의 교육이 높은위상을 차지하여 G20 교육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국내에 들어와 학업과 생활에 전념하고 자국에 돌아가서는 지한·친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수를 양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대학의 유학생에 대한 질적 관리역량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교과부가 수립중인 '글로벌 교육비전2020'에 유학생 유치 및 질적 관리대책을 주요 과제로 포함시켜 실천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사 보내주실 곳 : weeklynews@kcue.co.kr

|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 <http://www.kcue.or.kr/> → 대학교육소식 → 주간대학교육

|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 Member Universities News

※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 해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